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관찰 질문:** 무엇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사명의 불로 살게 하였는가?

해답 1.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과 불타는 사명으로 충만하였다.

예레미야의 시대는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영적으로 타락했으며, 국제 정세는 불안하였다.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셨다. 그 충만함이 그를 이끄는 사명의 불이 되었다.

(렘 1:5)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그 시대에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말기셨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렘 1:9)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힘든 가운데에 예레미야를 끝까지 붙들고 준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서 사명의 불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렘 20:9)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나이다”

*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

가난한 땀장이 출신의 영국 사람. 국교회의 탄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투옥되어 감옥에서 12년을 보내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된 책 <천로역정>을 집필하였다.

❁ 적용 질문 1

- 1)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 2) 일상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해답 2. 조롱과 치욕 속에서도 사명의 불로 끝까지 돌파하였다.

예레미야는 외로움, 오해, 박해, 그리고 끝없는 고난과의 전쟁을 한 선지자이다. 그는 어떤 선지자보다 심리적·정서적·육체적 고통을 깊이 겪은 사람이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의 안에 말씀의 권세로 타오르는 사명의 불이 있었기 때문이다.

1) 관계의 상실 속에서도 사명을 지킴 - 독신과 고독의 삶

(렘 16:1-2)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찌니라”

2)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진리를 지킴 - 말씀 때문에 당한 치욕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매국노라고 불렀다.
(렘 20:8)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이다”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3) 폭력과 투옥 속에서도 사명의 자리를 지킴 - 죽음의 위기에도 선포
예레미야는 말로만 핍박받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맞았고, 갇혔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사명의 자리를 지켰다.

4) 감정의 상처에도 마음을 지킴 - 친구, 친족들의 배반과 미움에서
가까운 친구들이 대적이 되었으며 고향 아나돗 사람도 그를 죽이려 모의하였다.
(렘 20:10)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말씀의 불은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레미야는 고난을 없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로 고난을 돌파한 사람이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을 품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였다.

❁ 적용 질문 2

- 1) 죽도록 힘들어 도망하고 싶었던 어려움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 2) 지금도 내가 붙들고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

해답 3. 절망의 현실 위에서 여호와를 노래하며 소망을 통치하였다.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였다. 그는 자신의 예언을 조롱한 자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백성과 함께 우는 목자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 부른다. 예레미야의 다스림(라다)은 눈물에서 끝나지 않았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는 여호와를 노래하였다. 이것이 주님의 통치(라다)이다.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주님의 통치는 발을 산 사건으로 잘 드러난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곧 나라가 망할 걸 알던 그때, 하나님은 “아나돗에 있는 네 숙부의 발을 사라”고 하신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사고, 증서를 봉인하여 보관한다. 이 행동은 절망의 한 가운데에서 드린 믿음의 통치 행위, 즉 라다의 선포이다.

(렘 32:15)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는 멸망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 그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여 함께 울며, 끝까지 소망을 선포한다. 이것이 참된 영적 리더의 모습이다.

불타는 사명을 받은 교회도 이와 같다. 절망을 해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환경을 따라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 적용 질문 3

- 1)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이 들려올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에 건물구입 등)
- 2) 지금의 현실에 묶이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도전하기 원하는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